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볼티'

- 가격 싸고 휴대편한 보급형 큰 인기 -
기능 제한된 '스캐너'는 작년보다 판매 줄어

대표적인 컴퓨터 입력장치인 스캐너 매출이 경기한파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든 데 반해 디지털카메라는 보급형 제품 출시에 힘입어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붐이 일면서 지난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던 스캐너는 최근 경기한파 영향으로 수요정체 현상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선을 보이기 시작한 디지털카메라는 가격이 대중화되며 매출이 큰폭으로 신장, 컴퓨터 입력장치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업체들은 올해 스캐너의 경우 20만

원대에서 30만원대 보급형 제품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연간 8만여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PC 본체 시장이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데 비교하면 안정적인 성장세를 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난해 스캐너 시장이 연간 1백%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추세가 한풀 꺾였음을 알 수 있다.

스캐너가 수요정체 현상을 빚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디지털카메라는 지난해 이후 1백만원대 수준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천~4천대 규모에서 올해 2만여대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돼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일선 매장에서 느끼는 스캐너 수요정체와 디지털카메라 수요증가 현상은 더욱 심하다. 용산전자 상가에서 주변기기 유통점을 운영하는 J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는 스캐너를 한달 평균 5백~6백대씩 팔았으나 올해는 한달에 1백

~1백50대를 판매하는 정도』라며 『이에 반해 디지털카메라는 올 상반기 이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 한달 1백~1백50대를 팔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2백만원에서 3백만원대를 웃돌던 디지털카메라 가격이 1백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상대적인 가격부담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휴대가 쉽고 기능이 다양한 데 반해 스캐너의 경우 용도가 한정돼 있어 소비자들이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찾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함종렬기자>

(전자신문, 98. 12. 16)

디지털카메라용 CCD 개발활기

- 소니·샤프 등 日 반도체업체 200만 화소 넘는 제품 속속 출시 -

일본 반도체업체가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용 고체촬상소자(CCD)의 개발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일경산업신문』에 따르면 소니, 마쓰시타전기산업, 샤프,

산요전기등 일본의 주요 반도체업체는 PC판매가 부진하고 가전시장의 불황이 지속돼 반도체 관련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카메라용 CCD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의 개발 및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카메라용 CCD는 지난해 말 1백만화소급 제품이 출시된 이래 최근에는 2백만화소를 넘는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는 등 생산업체의 화소수 확대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업계 2위인 마쓰시타전기산업이 유효 화소수 1백60만화소(0.5인치)급 제품을 개발한 데 이어 7월에는 도시바가 1백66만화소급 제품을 개발, 양산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최대 업체인 소니가 유효 화소수 2백2만화소급 제품을 선보이면서 2백만화소를 넘는 제품 분야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업계 3위인 샤프가 2백6만화소급 제품을 개발, 업계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도시바도 최근 2백30만화소급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데 이어 가까운 장래에는 6백만화소급 제품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요전기는 이달 초에 네덜란드 필립스와 민수용 CCD의 개발·생산·판매 부

문에서 포괄적으로 제휴했다.

양사는 「프레임 트랜스퍼(F'T)방식」이라는 독자적인 영상처리 기술을 CCD에 도입해서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전자신문, 98. 11. 10)

한국통신카드, 스티커사진 자판기 등 3종 출시

한국통신카드(대표 김노철)가 즉석 사진 전화카드 자동판매기, 스티커 사진·전화카드 겸용 자동판매기, 팬시포토 발급기 등 3개 모델을 잇따라 개발해 출시에 나섰다.

폴리네트정보기술과 공동으로 개발한 즉석 사진 전화카드 자판기(모델명 매직 카드)는 즉석에서 자기 얼굴을 찍어 인쇄한 전화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판기는 90종의 3차원 바탕 그림을 제공하며 1회 사용료는 1천5백원권 전화카드와 사진카드 제작비를 포함, 3천원 정도다. 또 1·2·4분할 인쇄 및 한글·영문 문자입력을 지원하도록 설계돼 선물이나 명함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업계 최초로 출시된 스티커 사진·전화카드 겸용 자판기(모델명 매직 포커스)는 4·8·10·16분할 인쇄 및 파노라마·컬러선택기능 등을 갖고 있으며 1백80개(전

화카드 90개, 스티커 90개)의 3차원 배경화면을 제공한다.

이밖에 팬시포토 발급기(모델명 KTCP)는 전화카드와 PVC카드에 사진이나 문자를 합성해 낱장으로 인쇄·출력할 수 있어 사원증·배치·즉석명함·캘린더·티셔츠·팬시엽서 등 다양한 팬시포토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온기홍기자〉

(전자신문, 98. 12. 4)

디지털카메라 의장출원 활발

- 작년 60건 이어 올해도 9월까지 24건 -

차세대 카메라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관련 의장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카메라 관련 의장출원은 주로 일본기업이 주도해 왔으나 97년을 기점으로 국내기업의 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청에 따르면 지난 96년까지 국내 전자업체들의 디지털카메라 관련 의장출원은 거의 전무했으나 지난해 삼성전자가 40건을 출원한 것을 비롯, 삼성항공 7건 등 총 60건을 출원했으며, 올해도 지난 9월까지 LG전자(10건), 삼성항공(4건)을 중심으로 24건이 출원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디지털카메라가 최근 일본을 중심으로 차세대 카메라로 각광을 받기 시

작하면서 국내서도 전자대기업을 필두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디지털카메라 관련 의장출원이 절차상의 문제로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원인에 대한 심사지도를 강화, 애써 개발한 디자인이 사장되지 않고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중배기자〉

(전자신문, 98. 12. 4)

삼명코퍼레이션, 디지털 즉석사진 출력기 공급

삼명코퍼레이션(대표 임홍순)이 디지털 사진과 스티커 사진을 결합시킨 초소형 「디지털 즉석 사진 출력기(모델명 품생품사)」를 개발,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모니터를 보며 원하는 사진을 촬영한 후 출력, 스티커·액자·머그컵·배지 등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카메라·캠코더와 연결해 원하는 사진만 선택해 즉석에서 인화할 수 있다.

크기가 3백60×4백×5백10mm이고, 무게가 20Kg인 이 초소형 출력기는 세피아·파스텔 등 원하는 색상과 타원,

사각, 멀티복합, 2·4·16분할 등 13가지 형태의 출력이 가능하다.

또 미아방지용 사진과 연인·친구 얼굴사진을 즉석에서 촬영, 승화형열전사 출력방식으로 액자·머그컵·배지 등을 만들 수 있다. 전용 용지를 사용할 경우 출력소요시간은 65초며 장비가격은 대당 2백97만원선이다.

문의 (02)3445-4691

〈온기홍기자〉

(전자신문, 98. 12. 1)

**디지털카메라시장 급성장
2005년 4천만대...
자동카메라 앞설듯**

디지털카메라가 오는 2005년부터 자동카메라를 제치고 카메라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세계 최대의 디지털카메라 생산업체인 일본의 올림퍼스는 세계에 4천만대 규모로 성장해 3천만대에 그친 기존 자동카메라 시장을 1천만대 정도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국내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를 위해 내한한 일 올림퍼스사의 아시아마케팅 담당 이케다 신조씨는 세계 디지털카메라시장 규모가 올해에는 3백70만대로 4천2백만대 규모의 자동카메라시장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오는 2005년

에는 자동카메라를 제치고 최대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카메라시장은 올해와 내년을 기점으로 하향세로 돌아서 2000년에는 4천만대, 2005년에는 3천만대로 줄어드는 반면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올해에 3백70만대, 2000년에는 1천만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가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일안반사형(SLR)카메라시장은 지난 97년 4백10만대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연간 3백만대 규모를 꾸준히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됐다.

〈유성호기자〉

(전자신문, 98. 12. 7)

LG산전, 고속 스티커 사진 자판기 출시

- 터치 스크린 ... 고품질 합성사진 출력 -

LG산전(대표 이종수)은 터치 스크린 및 고속 인쇄 방식을 적용, 사용시간을 크게 줄인 스티커 사진 자판기 신제품(모델명 터치 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터치.미」는 5백만회 이상 사용 가능한 터치 스크린과 ECP(Extended Capabilities Port)모드를 적용, 출력시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용시간을 줄여 고객들의 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운영자 입장에서 수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새로운 합성 기술을 도입해 기존 합성 사진의 단점을 보완한 고화질 합성 사진의 출력이 가능하며, 합성 사진의 배경도 영화 포스터·CF광고·잡지·꽃 배경 등을 채택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대 64파노라마까지 촬영이 가능한 이 제품은 직사각형·정사각형·원형·세로형 등 다양한 12가지의 배경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 촬영한 후 머그 컵에 인쇄할 수 있는 역상 이미지 출력도 가능하다.

이외에 이 자판기는 이용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자판기 전면에 청색과 보라색을 적용하고 측면에 입체적인 캐릭터 성형물을 부착했다.

가격은 대당 1천3백20만원이다.

〈온기홍기자〉

(전자신문, 98. 11. 18)

■ 신홍 비주얼 시스템, 스티커 사진 자판기시장 20대 벤처사장이 '도전장'

20대 청년 3명이 창업한 벤처기업이 스티커 사진 자동판매기시장에 도전장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성석용(29)·윤재

윤(29)·성진씨(26)등 3명이 설립한 신홍비주얼시스템(대표 성석용)의 첫 작품인 스티커 사진 자판기는 풍경·애니메이션·공룡·우주·팬시·자동차·오토바이·비행기 등을 주제로 직접 개발한 72가지 배경화면을 담아 얼굴과 배경의 합성이 가능하고 고객이 원하는 만큼 얼굴 사진을 분할해 인쇄할 수 있다. 또한 586급 컴퓨터를 비롯해 인화용지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투명한 OHP필름, 국산 잉크젯방식 프린터 및 고체촬상소자(CCD)카메라를 내장했다.

특히 이 자판기는 불투명한 인화지를 사용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투명용지를 사용함으로써 휴대폰이나 무선호출기 등 액정화면에도 스티커 사진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프로그램과 부품을 자체 개발하는 등 거의 1백% 국산부품을 채용, 생산원가를 대폭 낮춘 신홍의 스티커 사진 자판기 가격은 기존 제품의 절반수준인 6백30만원이다. 프린터·인화지·CCD카메라 등 주요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 1천2백만원 선에 거래되는 기존 제품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가격이다.

이 회사는 또 기존업체들이 일본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열승화방식 프린터가 국내에서도 최근 개발됨에 따라 열승화방

식 프린터를 내장한 제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성석용 사장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투자자를 찾고 있다』면서 『제품 생산라인 구축이 쉽지 않아 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하는 것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온기홍기자〉

(전자신문, 98. 11. 24)

■ 디지털카메라 '호황' 올수출 81%·내수44% 늘듯

후지사진필름, 올리퍼스광학, 소니 등 일본 카메라업체들의 디지털카메라 수출 및 내수 판매가 올해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 「닛케이 마켓 액세스(NMA)」를 인용한 미 「뉴스바이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일본 카메라업체들은 전년 동기에 비해 62% 증가한 3백만여대의 디지털카메라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수출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1백64만여대, 내수는 44% 늘어난 약 1백40만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수출이 내수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내수시장 점유율에서는 후지사진이 22.1%로 1위를 차지했고, 올리퍼스가 19.8%, 세이코 엠슨이 13.7%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30.1%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한 카시오는 후지사진과 올림퍼스 등의 잇따른 고화질 제품출시로 주력 기종인 중저가의 보급형이 고전, 시장점유율이 11.2%로 떨어져 4위로 밀렸다.

일본 카메라업체의 올해 미국 시장 판매대수는 사상 처음으로 1백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에는 소니가 38%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올 유럽시장 판매대수는 23만여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반기에는 올림퍼스가 전체의 28%를 차지해 1위를 올랐다.

〈정혁준기자〉

(전자신문, 98. 11. 30)

■ **캐논, 카메라 생산 아시아에 집중기로**

일본 캐논이 카메라 생산체제를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캐논은 최근 대만에 11억엔을 투자해 카메라렌즈 가공 및 카메라용 전자부품을 실장하는 공정을 담당하는 새 공장을 건설한데 이어 말레이시아에는 콤팩트카메라의 월생산능력을 종전의 15만대에서 20만대로 끌어올렸다.

캐논은 이번 대만 공장 건설을 계기로 그 동안 4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카메라 조립 및

부품가공 공정을 새 공장을 포함한 2곳으로 집중시킬 계획이다.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거품경제붕괴 후 가동을 중단해 온 생산라인을 재가동시켜 카메라 생산능력을 월 20만대로 확대했다.

〈주문정기자〉

(전자신문, 98. 11. 30)

■ **18개 민·관기관 기술알선 공조 정보교류·공동홍보 각종행사 조정 나서**

산업지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생산기술원 산업기술정보원 등 국내 18개 민·관 기술거래 알선기관이 업무 협조에 본격 나선다.

중기청은 19일 이들 18개 기관이 △ 상호 정보교류 및 △ 기술거래행사(테크노마트)공동홍보와 개최 시기 연중안배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관들은 한일테크노마트 특허기술장터 기술박람회 등 테크노마트 행사를 연중 안배, 업체마다 편리한 시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 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회원기관이 참가할 경우 무료로 부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술거래 기법을 공유토록 했다. 이와함께 매년 유망한 기술 18종을 엄선한뒤 이를 공동추천, 무료로 거래를 주선했

기로 했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관은 과기부 산자부 정보통신부 중기청 특허청등 5개 정부부처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산업기술지원단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종합금융 증진공 특허기술정보센터 한국테크노마트 등 13개 민간기관이다.

■ **디지털코리아, 고해상 데이터 프로젝터 공급 - 39dB 이하 저소음 ... 회의·교육용 적합-**

액정프로젝터 전문 공급업체인 디지털코리아(대표 김영환)가 미국 CTX사의 저가형 고해상도 데이터 프로젝터 「EzPro680」을 수입,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EzPro680은 1천24×7백68 픽셀의 고해상도를 구현해 기업체는 물론 교육기관·관공서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투사하는데 적합하다.

무게 5.7kg에 A4 크기로 이동과 설치가 간단해 천장에 부착해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장시간 사용해도 눈에 피로를 주지 않고 일정 조도하에서 선명한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디지털코리아측은 설명했다.

이 제품은 특히 회의나 교육용으로 적합하도록 소음부분을

개선해 39dB 이하의 저소음에 리모컨 기능과 화면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줌·전동포커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정 부분만 확대할 수 있는 디지털 줌기능과 프로젝터의 3W짜리 스테레오 스피커도 장착하고 있다.

가격은 1천4백만원.

〈박영하기자〉

(전자신문, 98. 11. 20)

■ 삼성전자, 새 스티커 자판기 출시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열 굴사전을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로 만들어 주는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 「포토 프라자 워고 (PVM-290)」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주고객층인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춰 퍼즐·이야기·카드 만들기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워고」란 자체 캐릭터와 2백여개의 배경화면을 채택했다. 또한 자판기를 외부에 설치할 경우 눈·비·도난 등에 대비, 방수처리·도난방지·보온장치 기능도 갖추고 있다.

특히 자판기의 부품 국산화율을 95%까지 높이는 한편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갖춰 영업정지로 인한 수입감소를 최소화했다. 대당가격은 1천2백50만원이다.

〈온기홍기자〉

(전자신문, 98. 11. 25)

“PL법 3~5년 늦춰라”

산자부·경제단체 당정 ‘2000년 시행’ 방침에 반발

정부와 여당이 제초물책임(PL)법 조기 도입방침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주무부처인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전자산업진흥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산업계 관련단체들이 PL법 조기 시행에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민회의와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보호원등 소비자단체와 학계 의견을 반영, PL법을 조기 도입키로 하고 지난 17일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서 상반기에 마무리, 1년~1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와 중소·벤처기업 관련부처 및 기관, 전자업계 단체 등은 「PL법의 도입취지와 명분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지금은 IMF체제 상황이어서 PL법 도입에 따른 파장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 최소한 IMF 이후로 입법과 시행

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자자원부는 「PL법을 입법 예고하기 앞서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시행시기를 IMF를 극복하는 시점인 3년 이후로 늦춰 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러한 사항을 조문에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과 기협중앙회는 「PL법은 소송비용·배상비용·보험료 등 사후 비용은 물론 적잖은 사전 준비비용을 수반해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경영이나 기술개발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며 「이는 곧 정부의 벤처기업 집중 육성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번주 중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산업진흥회는 「PL법 조기 도입은 IMF이후 산업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전자산업 전반의 대외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최소한 5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25일 업계회의를 통해 의견

을 수렴,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재정부·국회·청화대 등 관계 요로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경련도 『현재 국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PL법 도입이 최우선 정책과제가 아니며 또 국내업체들이 이를 시행할 준비도 전혀 안된 만큼 현재도를 보완, 강화하는 선에서 소비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다른 제조업체 단체들도 정부와 여당이 이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절차가 실시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 반발의 수위를 조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익, 이종배기자〉

(전자신문, 98. 11. 24)

**중국 디지털 카메라시장 급성장
- 2000년 연간 100만대 수요예
상, 우리기업 진출 서둘러야 -**

중국의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판매가 개시된 97년 10월이후 판매량은 이미 1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북경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만대 이상이 판매됐다.

디지털 카메라는 간편하고 빠른 조작이 가능해 언론매체와 광고, 보건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중국 가정에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고, 가격 또한 하락함에 따라

2000년경 디지털 카메라시장은 약 100만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중국 기계공업부는 전망했다. 중국은 전세계 카메라 소비량의 1/9을 소비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카메라시장이다.

코닥은 2천원(241달러)에서 1만원(1,205달러) 가격대의 디지털 카메라 10여종을 중국시장에 내놓고 있다. 지난해 약 60만대의 디지털 카메라가 중국시장에 출시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판매량의 70%에 달하는 규모이다.

중국기업들도 급증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제품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최대 카메라 생산업체인 강소성 소재 피닉스광학은 북경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중간 품질의 디지털 카메라 개발에 돌입했다.

저가격대 디지털 카메라는 중국시장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닉스 광학은 대만기업과 합작으로 저가격대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해 출시했으나, 판매가 부진해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일간 해외시장, 98. 12. 29)

스위스, 초음파 영상진단기 시장 활기

- 신규 의료보험법 시행으로 수요 급증 전망 -

현지 관련업계에 의하면 스위스의 초음파영상진단기 시장 규모가 연간 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법이 도입될 경우 임신부들이 2회까지 초음파검사를 의료보험법에 따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돼 이 시장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 초음파영상진단기 시장의 주요 공급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스위스 현지에 판매법을 설립해 직접 진출하고 있는 일본 도시바 제품이 가장 넓게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독일 지멘스, 미국 Akuson사, 유일한 스위스 업체인 Kontron Instruments AG 등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스위스내 유일한 초음파영상기 생산업체인 Kontron Instruments AG사가 스위스 시장의 약 10%를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품이 전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 초음파영상진단기 수입이 97년에 전년대비 32% 급증한 S. Fr. 4,346만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98년 들어 11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한 S. Fr. 3,322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입 감소세는 조만간 입법화될 예정인 새로운 의료보험법과 관련해 현지 수입업체들의 판망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스위스 초음파영상진단기 수입시장의 주요 공급국들을 살펴보면 97년 기준 미국(수입 시장 점유율 34%), 독일(15.6%), 일본(12.7%), 노르웨이(12.4%)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대 공급국인 미국의 경우 96년 S. Fr. 904만에서 97년 63.6% 급증한 S. Fr. 1,479만을 기록했다.

98년 들어 특기사항으로는 중계무역거점지인 화란으로부터 수입이 11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30.3% 급증한 S. Fr. 625만을 기록해 일약 미국에 이은 최대 공급국으로 부상한 점을 들 수 있는데 MDD등 현지 안전기술규격을 우회하기 위해 아시아 등 제3국산 수입품이 화란을 경유해 많이 유입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96년에 전체 초음파영상진단기 수입시장의 0.57%를 점하는 데 그친 S. Fr. 18만을 기록해 아직 진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97년 들어 전년대비 28.2% 증가한 S. Fr. 24만원의 실적으로 꾸준히 스위스 초음파영상진단기 시장을 노크하고 있으나 98년에는 11월말 현재 수출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EU, EFTA회원국, GSP 수혜국에는 무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산의 경우 최대 국관세가 부과된다.

초음파영상진단기의 경우

의료기라는 제품 특성으로 인해 철저한 애프터서비스, 사용자교육 등이 필수적이며 스위스 초음파영상진단기 시장의 주요 공급업체들은 독자적인 서비스체제를 구축해 대고객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또한 스위스 초음파영상진단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SEV(스위스 전기·전자기술협회)를 통해 스위스의 의료기기 안전규격인 MDD (Medical Device Directive Approval) 인증을 얻어야 하는 등 초기 진출시 기술장벽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편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도시바의 단순모델인 Capasee(흑백모니

터, 기본형 기준)의 경우 S. Fr. 3만, 최신 고급모델인 SSA 270 A 슈퍼HG(컬러모니터, Low Flow CDI 모듈 및 컬러 Angio 모듈 장착)의 경우 S. Fr. 25만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바 제품이 여타주요 브랜드 제품에 비해 15~20% 정도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상 명단

○Morwell Medical GmbH
Gwerbestrasse 9, CH-8132 Egg b. Zuerich, Switzerland
Tel.0041-1-986-2638
Fax.0041-1-984-0929
Contact:Mr.Joseph Moradian

● 수입실적(HS 9018,1200)

(단위 : S.Fr.천)

국 별	1996	1997	98.1~11
독 일	6,310	6,803	6,048
프 랑 스	830	961	637
이 탈 리 아	113	380	1,041
화 란	4,494	4,797	6,253
오 스트 리 아	4	1,110	575
영 국	1,054	608	357
노 르 웨 이	4,209	5,387	3,115
이 스 라 엘	1,203	1,987	230
한 국	188	241	-
일 본	4,792	5,529	4,909
미 국	9,046	14,799	9,562
총 계	32,956	43,466	33,222

(자료 : 스위스 연방통계청)

* US\$1=S. Fr. 1.24(96년), 1.45(97년), 1.40(98년)

○LMT Leuenberger Modiz-
intech AG
Industriestr. 19, CH-
8304 Wallisellen, Switzer-
land

Tel.0041-1-877-8400

Fax.0041-1-877-8410

Contact:Mr.Hueni

○Amstutz-Produke AG
Luzernstrasse 11, CH-
6274 Eschenbach LU,
Switzerland

Tel.0041-41-448-1441

Fax.0041-41-448-2189

Contact:Mr.Neyses

○Polymed Medical Center
AG
Industriestr. 59, CH-
8152 Glattbrugg, Swit-
zerland

Tel.0041-1-810-0362

Fax.0041-1-810-3532

Contact:Mr.Mastai

○Sherine Med AG
Kirchstr. 7, CH-3427
Utzenstorf, Switzerland

Tel.0041-32-665-0555

Fax.0041-32-665-0559

Contact:Mr.Schaer

■ **中, 감시용 비디오시장 급성장**

가정 오락시청에 사용되는 가정용 비디오외에 은행, 보안, 소방, 교통운수용으로 사용되는 감시용 비디오 시장이 최근들어 급부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녹화시간이 8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용 비디오와는 좀 다르게 제작 되어야 하는 이런 감시용 비디오는 중국정부가 범죄나 교통에 대한 정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면서 은행 보안, 소방, 교통운수방면에서 감시용 카메라용으로 설치붐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 비디오의 사용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중국 하남성의 平頂山지역 공상은행 등 몇곳을 시범업체로 지정해 실시해 보았으며 그 결과 인력이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효율도 매우 향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베이징, 상하이, 따리엔, 팡조우 등 주요 대도시부터 이런 설비를 갖추도록 행정지도도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열차에도 비디오 설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는 이런 용도의 감시용 비디오를 생산하는 전문업체가 없다. 현재 사용하는 것은 가정용 비디오를 개조한 것이어서 효율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매우 비싼 편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투자 회사가 이 품목의 시장성에 주목해 이런 용도의 비디오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식은 파나소닉이 최근 연구하고 있던 장수형 磁頭시스

템으로, 수명이 8천시간 이상되며 조작이 매우 간편하다고 한다.

아직까지 중국의 감시용 비디오 시장은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곧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며 응용영역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일간 해외시장 98. 12. 29)

〈복사기〉

■ **日, 중고재생 복사기 생산 활발**
- 리코·후지제 등 폐복사기 부품 재활용, 신품과 동일품질 보증 -

일본의 복사기메이커 각사가 사용이 끝난 복사기를 회수, 사용 가능한 부품을 재사용해 중고재생 복사기로 생산, 판매하는 중고재생 복사기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선발 주자인 리코, 후지제록스에 이어 캐논이 지난달 22일부터 일본 국내에서 중고재생 복사기의 판매를 시작했다. 미놀타도 내년 1월부터 중고재생 복사기를 판매한다.

지구환경보전, 자원의 재활용, 폐기물 감량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리사이클 설계와 부품의 표준화, 공통화, 내구화 등에 맞추어 신품과 동일하게 품질을 보증하는 중고재생 복사기의 생산, 판매에 힘을 기울여 환경친화적인 복

사기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리코는 93년 12월에 재사용 부품(재생부품)을 포함하는 Lot도 있고 포함하지 않은 Lot도 있는 중고재생 복사기를 발매했다.

97년 10월에 모든 Lot에 회수한 복사기의 재생부품을 사용한 중고재생 복사기를 발매, 중고재생 복사기 사업을 확충하고 있다.

재생부품 사용률이 가장 높은 것이 작년 10월에 발매한 'SPIRIO 5000RM'으로 부품 수 비율에서 최대 45%, 중량비에서 60%이며 반대로 가장 낮은 것이 중량비에서 1% 미만이다.

이 때문에 중고재생 복사기의 품목 다양화 추진과 함께 재생부품 사용률을 좀더 높일 계획이다.

현재 부품의 재사용률은 부품 숫자로 약 35%이며 2000년에 5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품의 재사용 횟수는 1회이다. 앞으로 복수 사용을 위한 품질 보증기술체제가 갖춰지면 2~3회의 사용도 검토하고 있다.

캐논은 92년 11월부터 미국 버지니아 공장, 93년 6월부터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중고재생 전용공장을 건설하고 복사기의 중고재생사업에 착수해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중고재생 복사기를 판매해 왔다.

일본에서는 이 회사 관리하에 외부전문업자가 기본機種인 NP6500을 회수, 분해, 세정, 선별해 캐논의 생산자회사 카피어 甲府공장에서 중고재생 복사기로 조립한다. 부품의 재사용률은 부품숫자비, 중량비 모두 50% 이상이다.

앞으로 중고재생 복사기도 50% 이상의 부품재 사용률을 목표로 하고 부품의 재사용 횟수는 1회, 중고재생 복사기의 부품 재사용은 하지 않는다. 중고재생 복사기는 기능의 개선을 포함해 기본기종에서 사양을 변경한 제품으로 다양화할 계획으로 가격은 사양에 맞게 설정한다.

미놀타는 내년 1월 일본 국내에서 EP6000RM을 발매해 중고재생 복사기 사업에 착수한다.

94년 11월에 발매해 지금까지 3천대이상 판매한 EP6000을 판매회사인 미놀타판매에서 회수해 이 회사 공장에서 분해 세정, 선별해 중고재생 복사기로 조립한다.

EP6000RM에서 부품의 재사용률은 부품숫자 비율에서 약 70%, 중량비에서 약 80%이며 부품의 재사용 횟수는 1회다.

가격은 EP6000과 동일한 사양으로 EP6000보다는 10만엔 저렴하게 책정했다.

(일간 해외시장, 98. 11. 5)

<레이저>

LG산전,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 국산화 국내업체 최초 ... 방전관 대체 기대

LG산전(대표 이종수)이 LG종합기술원과 공동으로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제품은 국내 최초며 세계적으로도 미국·독일·프랑스에 이어 네번째다.

이 회사가 국산화한 레이저는 알루미늄·갈륨·비소 화합물·인듐·갈륨·비소 화합물 등 화합물 반도체로 만들어진 다이오드로 여기에 전류를 공급함으로써 20W이상의 고출력 레이저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LG종합기술원은 반도체 칩 개발을, LG산전은 본딩 및 패키징 작업을 각각 담당했다.

LG산전측은 『이 제품이 지금까지 주로 사용돼 왔던 고체 레이저의 여기(들뜨게 하는 것) 광원인 방전관에 비해 소형·경량으로 안정성·수명·효율성에서 뛰어나 기존 고체 레이저용 방전관을 급격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레이저를 국산화함으로써 약 2백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

와 수출은 물론 이 분야에 대한 연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효율 반도체 레이저는 지난 96년 이후 선진국에서 독점적으로 생산, 고가에 판매하기 시작한 최첨단 기술로 출력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정밀을 요하는 반도체 등 미세가공분야에 주로 사용되며 의료용이나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박효상기자〉

(전자신문, 98. 11. 13)

LG산전, 반도체 펄핑 레이저 발생 기국산화

-수명 길고 크기 작아 출력 안정-

LG산전(대표 이종수)은 반도체 다이오드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빛을 레이저 빔으로 전환시키는 Nd:YAG 레이저 발생장치(DPSS Laser)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가 이번에 개발한 반도체 펄핑 레이저 발생장치는 평균 50W의 안정된 출력과 빔의 집적도가 높은 소형 레이저로 고정밀을 요하는 전자부품 및 각종 정밀 가공 분야에 특히 유용하다. 또한 에너지 전환 효율이 높아 크기가 작고 출력이 안정된 것은 물론 펄핑에 사용되는 반도체 레이저의 수명이 5천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정밀가공시 방전관에서 발생하는 빛을 레이저 빔으로 전환시키는 방전관 펄핑 방식의 Nd:YAG 레이저(FPSS Laser)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부피가 크며 약 2백시간마다 방전관을 교체해야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 회사는 이번에 개발한 제품을 수입품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동남아 및 일본 등으로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인데 일본업체와 판매계약이 성사 단계에 있다고 이 회사측은 덧붙였다.

DPSS 레이저는 종래 FPSS 레이저로는 불가능했던 응용분야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매년 55% 이상 성장하는 등 FPSS 레이저를 급속히 대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레이저 마커를 비롯한 정밀 가공 분야와 전자부품업계에서 DPSS 레이저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박효상기자〉

(전자신문 '98. 12. 9)

삼성, 인터넷 동영상 압축기술 국제표준으로 잠정 채택

한국이 21세기 정보통신의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인 데이터 압축 기술의 주역으로 발돋움한다. 앞으로 각국에서 생산하는

미래형 첨단 멀티미디어 통신제품에 한국이 개발한 특허기술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애틀랜틱시티에서 열린 제 45차 '엠펙(MPEG)4' 회의에서 삼성종합기술원(원장 임관·林寬)이 제안한 '정지영상용 가변형상 부호화 방식' 등 3건의 인터넷 동영상 압축기술이 잠정 표준안(Working Draft)으로 추가 채택됐다.

삼성측은 "이로써 지금까지 총 8건의 기술이 잠정 표준안으로 채택됐으며 그중 몇가지 기술은 12월 이스라엘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최종 표준안으로 확정하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엠펙4'는 영상 음향 데이터를 압축해 개인 휴대통신(PCS)이나 인터넷으로 주고받기 위한 국제표준으로 미래 정보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핵심기술의 집약체. 업계에선 '엠펙4'를 이용한 정보기기가 99년 처음 선보이고 2000년이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3건의 기술 중 하나인 '가변형상 부호화 기술'은 정지화상 정보를 최소의 정보량으로 효율적인 표시가 가능한 기술로 미국 사노프 연구소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채택됐다고.

국산 기술이 '엠펙4'의 표준

기술로 최종 확정될 경우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생산하는 미래형 첨단 멀티미디어 통신제품에 한국의 특허기술이 당당히 사용되며 관련 기술이 사용되는 제품마다 막대한 기술사용료(로열티)를 받게 된다.

〈홍석민기자〉
(동아일보, 98. 11. 6)

'99 국제 자재조달 포럼 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KOTRA 일본팀은 대일수출유망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품류의 대일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 전시회에 출품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 '99 국제 자재조달 포럼 전시회 개요

○기간 : 99년 4월 14~16일

- 주최 : 일본공업신문사, 일본전자기기수입협회(JEPIA)
- 장소 : 동경 Big Sight 국제전시장
- 규모 : 150개사 200개 부스
- 사업성격 : 일본 업계의 해외부품 조달 확대를 위해 일본공업신문사가 주최하는 전시회로, 해외 각국의 부품메이커가 출품해 일본 기업과 개별 상담회를 실시함.

■ 한국관 참가개요

- 규모 : 40개 부스(예정)
- 출품유망 품목
 - 전자·전기관련 부품, 계량·계측·제어부품, 자동차 부품
 - 기타 일본시장에 적합한 신소재, 중간재, 산업설비 및 부품
- 출품업체 특전
 - 일본공업신문사에 출품업체 소개기사 게재

- 일본공업신문 발간 전문잡지에 출품업체 소개기사 게재

■ 참가신청 요령

- 신청기한 : 99년 1월 25일 (부스 소진시 조기 마감)
- 별도 참가신청서를 일본팀으로 팩스 송부(신청서는 문의업체에게 제공)
- 참가비 : 300만원/부스(추후 참가비 총액 확정시 잔액 추가 납부)
- ※항공료, 체재비 및 추가발생비용은 개발부담
- KOTRA지원사항 : 전시장 임차 및 기본장치, 전시품 발송 및 현지 통관, 홍보 및 거래알선, 기타 제반행정 지원
- 접수 및 문의처 : KOTRA 시장조사처 일본팀 홍상영
전화 : 551-4325
팩스 : 551-4256

정 기 구 독 안 내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광학세계" 지를 정기구독하고자 하는 분은 1년간 책자 우송료 1만2천원을 지불하시면(국민은행 084-01-0156-856, 예금주 : 한국광학기기협회)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정기구독 기간중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본 협회(전화 : (02)581-2321~2)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